

판교신도시 인터넷 청약 가이드

에디터 임지영

판교 인터넷 청약 절차

- ① 전자 공인 인증서 발급(청약 가입 은행)
- ↓
- ②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 접속
- ↓
- ③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청약' 클릭
- ↓
- ④ 청약 신청 (인터넷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은행 창구에 있는 '도우미' 활용해 청약 신청 가능)
- ↓
- ⑤ 접수증 발급(청약 후 접수증 출력해 보관)



인터넷 청약 접수가 진행됨에 따라 복잡했던 사전 준비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청약 때마다 은행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져 집에서 손쉽게 원하는 아파트에 청약 접수를 할 수 있게 됐다.

판교신도시 분양에서는 청약저축 통장의 효용 가치가 높다. 청약 선택의 폭이 넓고 기회도 많기 때문이다.

판교신도시 청약 접수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인터넷 청약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 인터넷 청약 접수 시행 방침은 판교에서 3월 중순부터 공급될 전용면적 25.7평 이하 9420가구의 분양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그에 따른 혼잡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은행 창구를 통한 청약 접수도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 인터넷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은행 창구에서도 청약 접수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판교신도시의 경우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건교부의 방침인 만큼 미리미리 인터넷 청약에 대해 배워두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인터넷 청약 접수가 진행됨에 따라 복잡했던 사전 준비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청약 때마다 은행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져 집에서 손쉽게 원하는 아파트에 청약 접수를 할 수 있게 됐다. 청약 접수 절차가 간소해졌다고는 하지만 챙겨야 할 것들도 많다.

인터넷 청약 접수 미리 알기 인터넷 청약 절차는 ①공인인증서 발급(은행)→②청약통장 가입 은행 홈페이지 접속→③ '인터넷 청약 클릭'→④청약 신청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전 청약통장 가입 은행을 방문해 인터넷 뱅킹에 가입한 뒤 전자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은행 방문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통장·인감 도장이다. 다만 이때는 청약통장 가입자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청약 자격이 전산에 등록되면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컴퓨터라면 집이나 사무실 등 어디에서나 청약할 수 있다. 청약할 때는 가입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전자공인인증서 발급 때 부여받은 비밀번호를 치고 접속한 뒤 '인터넷 청약'을 클릭하면 된다.

그리고 일부 은행은 1,2순위만 인터넷 접수를 받는다. 따라서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문의해 접수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한편 국민은행의 경우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1,2,3순위 인터넷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2you.com) 사이트

에서는 다양한 청약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휴대전화로도 청약이 가능하다. 이 경우 모바일 뱅킹이 가능한 전용 단말기를 구입한 후 은행에서 금융 칩을 발급 받아 휴대전화에 장착해야 한다. 인터넷 청약과 마찬가지로 은행 창구를 방문해 청약 자격 전산 수락을 해놓으면 원할 때 휴대전화로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청약 자격 전산 수락'을 한 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은 하지 못한다. 만약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은행을 방문해 '청약 자격 전산 수락'을 다시 해야 한다.

인터넷 청약, 알아두면 좋은 것들 간단한 절차라도 인터넷 청약시 주의해야 할 점도 많다. 우선 인터넷 청약시에는 청약 자격 등록이 없어진 만큼 본인이 세대주, 거주지, 무주택 확인을 위한 모든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 실수로 잘못 입력하면 당첨이 되더라도 무효가 되고 5년간 1순위 자격이 없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절차가 간편해지기는 했지만 실수에 따른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격 요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 35세 이상 5년 무주택자 등 청약 자격이 세부적으로 구분돼 있다. 또 성남지역 거주 요건인 2001년 12월 26일 이전 거주지역 시 주민등록등본상의 실제 전입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청약 신청을 위한 불편을 줄이는 방법도 많기 때문에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된다. 청약 관련 서류를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제출한 뒤 청약 자격을 전산 수락해두면 청약 절차가 훨씬 수월해진다. 청약 자격 전산 수락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할 때마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행분)을 제시해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른다.

또 청약 자격이 전산에 등록되면 인터넷 청약을 할 때 은행에 갈 필요 없이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컴퓨터로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안히 청약에서 당첨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이다. 즉 해외여행 중이라도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컴퓨터만 있다면 청약이 가능하다.

